

# 스노보드 이상호 ‘1호 메달’ 청신호

지난달 월드컵 평행대회전 우승... 최근 대회마다 컨디션 최고조

##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D-2

최근 월드컵에서 연이어 선전하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메달 도전에 청신호를 쏜 스노보드 알파인의 간판 이상호(백센원가드)가 막판 담금질에 박차를 가한다.

이상호는 지난달 31일(이하 현지 시간) 슬로베니아 로글라에서 열린 2025-2026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지난 1일 이탈리아에 입성했다.

그는 로글라 월드컵에서 이번 시즌 월드컵 3승을 거둔 45세 베테랑 롤란드 피슈날러(이탈리아)와 포토 피니시까지 따지는 결승 접전 끝에 시즌 첫 입상을 금빛으로 장식했다.

지난해 3월 폴란드 월드컵 은메달 이후 시상대에 서지 못하던 이상호는 지난달 23일 오스트리아 지문회에서 열린 월드컵 평행대회전에서 4위에 오르더니, 이어진 로글라 대회에선 정상에 올랐다.

특히 지문회와 로글라 대회에선 전체 선수의 기록을 따지는 예선에서 1·2위에 오를 정도로 컨디션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올림픽을 눈앞에 뒀다.

로글라 대회 이후 FIS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상호는 “올림픽을 위해 이번 시즌 많은 장비를 테스트 했고, 올림픽 직전 마침내 해냈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이상호 스노보드 알파인 대표팀

감독은 “상호가 올림픽만 바라보며 이번 월드컵시즌 동안 무수한 테스트를 거쳤다”고 2일 연합뉴스에 소개했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은 개회식 이후 7일 본격적인 메달 레이스에 들어가는 가운데 한국 선수단의 ‘1호 메달’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경기가 이상호가 출전하는 8일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이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이 종목 은메달을 획득, 한국 스키·스노보드 사상 최초의 입상 기록을 남긴 이상호가 자신을 뛰어넘고 첫 금메달까지 바라볼 기회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오는 8일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에 출전해 대한민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길 것으로 기대되는 이상호 선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학생 체력왕 선발대회’ 중단 위기

2024-2025년 상황리 개최... 제주 꿈나무 발굴 한몫도, 전국체전에 예산 집중... 올해 사업비 편성 안돼

제주지역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스포츠 꿈나무들이 ‘국가대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열리는 ‘학생 체력왕 선발대회’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스포츠과학센터는 지난 2024년부터 도내 초·중·고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2년 동안 체력왕 선발대회를 개최했다.

체력왕으로 뽑힌 선수들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함께 1박2일 일정으로 진천국가대표선수촌,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스포츠과학원 등 선진 체육시설 체험을 실시, ‘국가대표’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2024년부터 2년 동안 도내 학생선수로 활약하는 200여명이 참가, 체력왕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등 성과를 이뤘다.

특히 종목 구분없이 오토이 체력만으로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대회로서 도내 학생선수의 피지컬 능력을 측정하는데, 유명 TV프로그램인 ‘피지컬 100’을 연상시키며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올해는 제주도의 재정난과 함께 전국체육대회가 제주에서 열리면서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 않아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년 동안 제주도가 1000만원 내외의 대회 운영 비용과 2000만원 정도의 견학 예산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전국체육대회 준비 등에 예산 지원이 쏠리면서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회를 주관해 온 제주스포츠과학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전국체전 준비 등으로 중단되더라도 내년부터는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 도체육회 2026 지정스포츠클럽 공모 9개사업 선정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 ‘2026 지정스포츠클럽 대상 전문선수반 운영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공모에 9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클럽은 ▷제주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 탁구 및 특화프로그램 농구 탁구 ▷서귀포시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 탁구 및 특화프로그램 수영 유아체육 배드민턴 ▷제주테니스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 테니스 및 특화프로그램 테니스 등 총 9개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선정된 스포츠클럽에는 전문선수반 운영 사업은 종목별 연간 5000만원, 특화프로그램 종목별 연간 3000만원 등 연간 3억3000만원이 지원된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운영 중인 지정스포츠클럽은 제주스포츠클럽과 서귀포시스포츠클럽, 제주테니스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자치도체육회는 추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제주도민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 이적설 돌던 PSG 이강인 ‘재계약’ 수순 엔리케 감독 “그는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강인(24·사진)이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을 떠나기는 커녕 팀과 ‘재계약’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겨울 이강인이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떠날 거라는 이적설이 돌았다.

몇 년째 ‘스타 군단’ PSG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벤치와 선발을 오간 그가 축구선수로서 ‘고향’이나 다름없는 스페인 무대로 돌아가는 건 실현 가능성이 적잖은 선택지였다. 그러나 스페인 라리가 이

적 마감시한인 지난 2일(현지시간)까지 이강인의 이적 ‘오퍼셜’은 끝내 들려오지 않았다. 이강인은 결국 2026년 상반기에도 PSG 유니폼을 입고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 그라운드를 누빈다.

이번 겨울 이적시장을 지나면서 이강인의 팀 내 입지가 단단해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프랑스 유력지 레키프는 3일(한국시간) “이강인은 이번 겨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지난여름 파리에서의 미래를 고민했던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

다. 이강인은 제안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쨌든 PSG가 시즌 중반에 이강인을 내보내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외려 2028년 6월까지인 계약을 연장하는 게 목표”라고 보도했다.

올 시즌 중반 이강인이 경쟁자들의 쫓바람으로 이전보다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하면서 펼친 활약상이 PSG 고위층과 코치진에 좋은 인상을 준 것으로 보인다.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은 이 경기 뒤 “상대가 공격적으로 수비할 때 압박에서도 공을 잃지 않는 선수가 필요한데 이강인은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면서 “그는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2026 AVC컵 배구 12개 참가국 확정

올해 아시아배구연맹(AVC)이 주최하는 AVC컵 2026에 나설 남녀부 대회 출전국이 확정됐다.

AVC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필리핀 캔든과 인도 아메다바드에서 각각 개최되는 AVC컵 여자 대회와 남자 대회 참가하는 12개 출전국을 발표했다. 조 편성 결과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AVC컵 여자 대회에서는 우리나라와 개최국 필리핀, 호주,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레바논이 우승을 놓고 다툰다.

라미레스 감독이 지휘하는 남자 대표팀은 개최국 인도, 바레인, 카타르, 파키스탄, 오만,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호주, 뉴질랜드와 경쟁한다.

연합뉴스

# 김해김씨좌정승공파종친회 2026년도 정기총회



회 장 남식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종친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2026년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종친회 발전을 위한 의견과 덕담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수 있도록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6년 2월 8일(일) 오전 11시  
**장소** 하니크라운호텔 별관 2층

부의안건

- 제7회 한마음단합대회 결산 승인의 건
- 2025년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승인의 건
- 정관개정의 건



직전회장 동주



상임부회장 광필



인방회장 수형



총방회장 정신



의방회장 상영



필방회장 순건



예방회장 상순



안방회장 창길



신방회장 성용



지방회장 용민



용규회장 성도



용호회장 경철



후찬회장 승업



검 회장 택중



청년회장 형식



부녀회장 홍춘자

- 고 문 동균, 대옥, 호선, 순현, 원호, 호성, 영중, 동규, 상식, 동건, 광수, 화중, 희상, 창욱
- 회 장 남식 □ 상임부회장 광필 □ 직전회장 동주 □ 감사 용국, 병식, 창길 □ 총무위원장 광필
- 부 회 장 태남, 창식, 양택, 수형, 용구, 태문, 애숙, 정신, 승찬, 상훈, 태규, 우철, 태규, 병수, 익선, 순진, 상순, 철용, 태수, 승중, 동진, 상범, 창택, 필수, 성용, 용민, 현민, 광민, 태익, 성도, 상돈, 경철, 태중, 상현, 정준, 창근, 호준, 형찬, 황국, 승업, 형석, 홍춘자
- 자 문 위 원 성혁, 재남, 성을, 창섭, 동백, 경만, 향호, 창현, 흥섭, 기범, 창호, 순선, 영식, 광철, 호선, 종식, 창령, 충현, 태건, 창식, 경철, 석중, 순영, 용찬, 용찬, 태부, 원일, 경주, 용범, 동용, 동일, 대은, 치중, 성준, 향근, 영중, 덕일, 태엽, 동규, 용식, 성훈, 승용, 석용, 두옥, 승택, 완욱, 성배, 병두
- 종 무 위 원 승찬, 남용, 영두, 공호, 평집, 제희, 춘택, 태진

- 이 사 경현, 태민, 영진, 성보, 승삼, 창근, 동익, 양운, 세홍, 인철, 경필, 경표, 양범, 용식, 병수, 흥근, 승훈, 영현, 성덕, 원남, 종필, 무근, 익수, 흥균, 경훈, 근형, 남용, 용규, 성철, 용철, 성보, 승철, 동영, 대경, 호윤, 홍철, 태석, 희찬, 영두, 영철, 공호, 상용, 영길, 충현, 평집, 태희, 제희, 세홍, 용우, 흥배, 종범, 경호, 수훈, 현수, 유현, 태진, 영택, 시중, 충희, 변명호
- 지파회장 수형, 정신, 상영, 순건, 상순, 창길, 성용, 용민, 성도, 경철, 승업, 택중
- 지회회장 상식, 필수, 상현, 성범

사무처

사무처장 상영  
조직이사 창효  
사업이사 영환

기획이사 영도  
대외협력이사 동욱  
연구이사 창현

총무이사 영관  
홍보이사 영희  
봉사이사 성화

재무이사 광민  
교육이사 중익

문의 : 총무이사 영관 010-6475-8718



김해김씨좌정승공파종친회 회 장 김 남 식